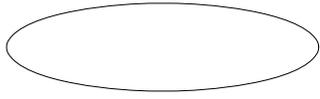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어 상용화 추진 정책

장 영 준(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 ▶ 일 시 : 2008년 4월 30일(수) 오후 2시
- ▶ 장 소 :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5층)



□ 개회

- 개회사(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축사(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

□ 주제발표

- ▷ “국제제주특별자치도 외국어 상용화 추진 정책”
장영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 지정토론

- 좌장 : 김종훈(제주대학교 사범대학장)
- 토론자 : 강택상(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정윤종(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기획조정팀장)
고태언(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신의경(제주한라대학 교수)
홍경선(제주대학교 교수)
한문성(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고승한(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글로벌 인프라 구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외국어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오늘 외국어 상용화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됨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변하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어 사용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외국어의 사용 정도가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면적은 우리 제주의 3분의 1 남짓이지만, 외국어 사용이 가능한 인구는 전체 인구의 70%가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한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제주가 외국어 상용화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많은 도민들께서도 큰 공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도내 언론사에서 제주현안에 대한 도민의견 조사결과 외국어 상용화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5.9%로 반대한다는 의견 18.5%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제주를 방문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이 살
길은 영어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며, 제주도처럼 특별한
여건을 갖춘 곳에서부터 먼저 시도해보자” 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외국어 상용화 기본
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어 상용화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상용화를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는 2013년 정주인구만 2만6천명에 이르는 영어교육도시가 완성되면,
외국어상용화 사업은 커다란 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 외국어 상용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
율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
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4. 30

외국어 상용화 정책 발굴을 위한 활발한 의견제시 기대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최항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가 외국의 자본과 고급인력을 유치하여 국제적인 관광, 무역,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생활과 사업을 하는 데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자유로운 활동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에서 기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외국어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는 언어적 측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외국어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주변 여러 선, 후발 국제자유도시들보다 비교우위의 외국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제주의 외국어 경쟁력 강화전략에 관한 장·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외국어 상용화 정책 발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주의 외국어 상용화 정책 발굴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외국어 상용화에 대한 도민공감대가 확산되고 제주가 외국어 상용화 정책 발굴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고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장영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님, 좌장을 맡아주신 제주대학교 김종훈 사범대학장님, 그리고 토론자

로 나서주신 강택상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님, 정윤종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기획조정팀장님, 고태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님, 신의경 제주한라대학 관광중국어과 학과장님, 홍경선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님, 한문성 제주일보 편집부국장님, 제주발전연구원 고승한 박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제주특별자치도 광역경제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4월 30일

2008. 4. 30

장 영 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목 차

| | |
|----------------------------|----|
| 1. 들어가는 말 | 13 |
| 2. 외국어상용화 추진 배경 | 14 |
| 3. 외국어상용화 추진 전략 및 단계 | 16 |
| 4. 외국어상용화 분야별 실천과제 | 17 |
| 5. 결 론 | 27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어상용화 추진정책

장 영 준(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특별자치도로서 (1) 국제자유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추진, (2) 자연유산, 전통문화, 관광 등의 자랑거리, (3) 도민 자체가 전부 자연스럽게 외국어로 사용하고, 문서자체를 외국어와 병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어 인프라 여건을 보면 상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싱가포르 전체인구의 70% 이상, 말레이시아 전체인구의 30% 내외, 중국은 3억명 내외, 필리핀 전체인구의 52% 이상, 핀란드 전체인구의 80% 이상이 영어를 사용하지만, 제주도는 전체인구의 1% (추산) 내외로 특단의 외국어 상용화 노력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정주여건 미흡하고, 영어교육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이 결여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어상용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다. 단계별·선택과 집중을 통한 외국어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한 제주 교육산업을 육성하며, 분야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한다. 또 자발적인 참여환경 조성으로 외국어 상용화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청과 도내 대학들의 협력·지원을 통한 공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외국인 불편해소를 위한 안내체계 개선 및 환경 조성, 도민 평생학습체계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한 영어교육센터 조성 등, 외국인 정주여건 지속 확충, 결재문서 등 외국어 병기 제도화, 공무원 및 도민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외국어상용화 정책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외국어상용화 추진전략 및 단계, 외국어상용화 분야별 실천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외국어상용화 추진배경

2-1 추진필요성

- 지식 및 정보기반사회의 중심 언어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
 - 지식 창조의 중심에 있는 세계 100대 대학중 영어권 대학 75개
 - 인터넷 정보 80%이상 , 자연과학 저널 73%, 사회과학 저널 85% 영어 표현

- 본격화되고 있는 글로벌화 추세에 능동적인 대응기반 마련
 - 세계화의 빠른 확산으로 제주지역 인재가 세계의 인재와 경쟁 불가피
 -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자유화, 규제완화 등이 빠른 속도로 진전
 -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홍콩, 싱가포르 등은 앞선 외국어 환경을 갖추고 있고, 국내의 부산, 인천 등은 공세적인 외국어 정책을 추진 중

- ☞ 외국인 생활편의 제공 및 친외국어 환경 조성은 관광산업은 물론 유리한 투자 조건을 이끌고 국내외 여러 도시들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국제자유도시 및 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하는 자치도의 외국어상용화 정책은 필수사항임
 - 제주의 전통문화 · 관광 · 유산 등의 자랑거리를 도민들이 직접 전세계에 알림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
 - 세계자연유산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세계적 관광지로의 도약기회

-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로 학습 성취도를 높이고 교육환경지속 개선
 -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교육이 한차원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의 능력 향상과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영어교육 시작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영어 교육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외국어서비스 제공

2-2 제주의 외국어 인프라 여건

○ 영어 상용 능력 부족

- 싱가포르 전체인구의 70% 이상, 말레이시아 전체인구의 30% 내외
- 중국은 3억명 내외, 필리핀 전체인구의 52% 이상, 핀란드 전체인구의 80% 이상

⇒ 제주는 전체인구의 1%(추산) 내외로 특단의 영어 상용화 노력 필요

○ 외국어 생활 환경과 시설 부족

-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외국어 생활 환경조성 미흡
- 외국어체험 공간 및 외국어 상용능력 배양을 위한 시설 부족

○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의 한계

- 동북아 관광, 물류의 허브로써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외국어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과 투자는 미미
-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외국어교육을 위한 지원체제와 인프라가 미흡하여 주민의 글로벌 역량에 한계

○ 외국인 정주여건 미흡

- 외국인 방문객중 의사소통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많아 외국인 친화적 환경조성에 걸림돌
- 공공부문에서 영어활용 증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요망됨
- 거주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

○ 영어교육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결여

- 영어 교수·학습의 체계적 실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제 미흡
-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미흡

○ 영어활용 학습 및 기회 확대 필요

- 국제적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영어교육시설 부족
- 해외연수 수요의 도내 흡수로 사교육비 경감과 다문화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영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3. 추진 전략 및 단계

3-1 목표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글로벌 외국어 인프라 구축

- 외국어 상용인력 5천명('08) → 2020년 6만명 양성

3-2 추진전략

- 단계별·선택과 집중을 통한 외국어 상용화 기반 구축
 - 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한 제주 교육산업 육성
 - 분야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자발적인 참여환경 조성으로 외국어 상용화 동기 부여
 - 교육청과 도내 대학들의 협력·지원을 통한 공교육 강화
- ☞ 관광 분야는 영어, 중국어, 일어 상용화 기반 구축
공공부문, 공교육 도민역량 강화 분야는 영어 상용화 중점 추진

3-3 추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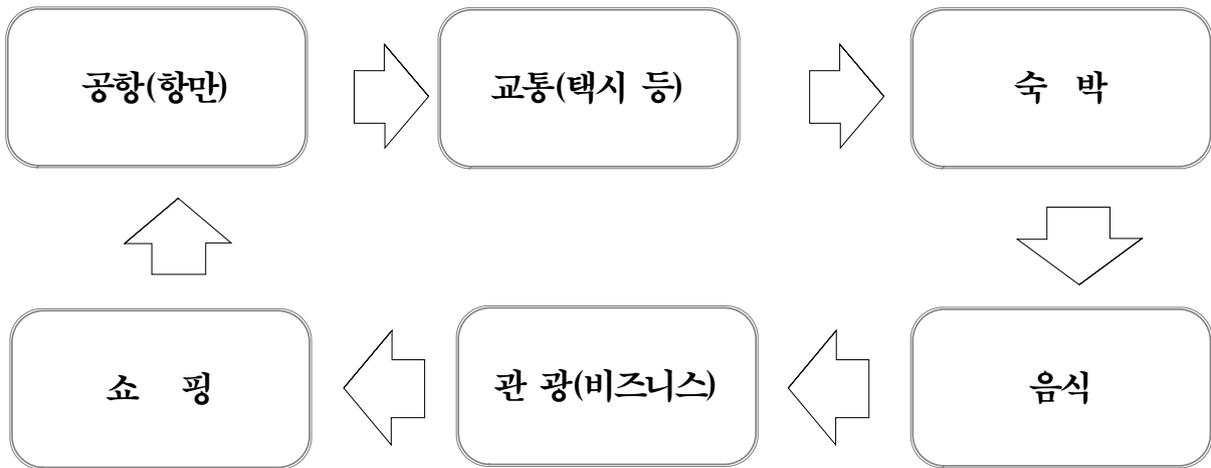
- 1단계 : 외국어 상용화 여건 조성 - 2008년~2012년
 - 외국인 불편해소를 위한 안내체계 개선 및 환경조성
 - 도민 평생학습체계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한 영어교육센터 조성 등
- 2단계 : 외국어 상용화 저변 확대 - 2013년~2016년
 - 외국인 정주여건 지속 확충
 - 결재문서 등 외국어 병기 제도화
 - 공무원 및 도민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
- 3단계 : 외국어 상용화 정착 단계 - 2017년~2020년
 - 외국인 전용거리 조성 등 외국인 친화적 인프라 지속 확충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등 유치 확대

3-3 추진분야 및 사업(총 4개분야, 13개사업)

- 외국어 사용환경 조성, 공공부문선도, 공교육(교육청), 도민 외국어 역량 강화

4. 외국어상용화 분야별 실천과제

4-1 외국인 방문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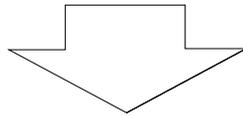
< 외국인 도착에서부터 출국까지 동선별 불편 최대한 해소 >

- 입국 절차 간소화 및 친절 안내 시스템 구축(통역 안내원 배치)
- 환영 분위기 조성(외국어 환영 현수막 및 각종 환영 간판)
- 각종 편의 시설 개선
 - 도로 표지판, 각종 간판 등 외국어 표기, 외국어 안내 책자, 지도 등
-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맞춤형 관광 및 숙박 정보 제공(공항, 항만, 터미널 등 무인 안내시스템 활용 등)
-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외국어 가격 표시제 시행(바가지 근절)
- 외국인이 선호하는 식당 등 선별 정보 제공(베스트 업소 선정 홍보)
- 분야별 특산품등에 다양한 쇼핑 정보 제공(가격대비 고품질 업소 등)
- 외국인의 방문형태, 소비패턴, 불만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4-2 외국어 사용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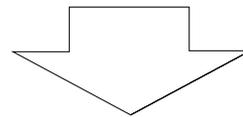
현 실 태

- 서비스업 종사자 및 도민 대부분의 외국어 의사소통 제한
 - 식당 메뉴판, 도로표지판, 옥외 광고물 등에 소통 불가능한 외국어표기
 - 외국인 생활편의를 위한 방송 및 신문 등 정보전달매체 미흡
 -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를 위한 정주여건 미비
- ☞ **외국인 불편사항중 언어소통 및 안내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



목 표

- 외국인의 고향처럼 편안하게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핵 심 과 제

- 외국인 안내체계 개선 및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 외국인 정주여건·환경 조성 등을 통한 이미지 제고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제주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제주교육산업 육성

① 외국어 종합안내 포털 시스템 구축

-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 서비스 구축
 - 1330 관광안내서비스, 응급 의료, 교통안내 등 종합포털 시스템 구축
 - 24시간 외국어 통역봉사 시스템 (사)한국BBB운동과 연계 추진
 - ※ 1330 기능에 대한 홍보 강화로 이용 극대화
- 제주넷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확대 구축

② 도로표지판, 간판 등 외국어 표기

- 도로표지판, 간판, 관광지 안내판 식당 메뉴판 등 통합 외국어 표기
 - 도로표지판, 간판 외국어 병기 추진
 - 관광지 안내판, 영문 관광홍보책자 및 관광정보지 제작 등
 - ※ 외국어 표준 매뉴얼 제작
- 도로명 새주소 외국어 표기, 교통안내시스템 등의 친 외국인 환경 조성

③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 외국인 다중이용 상가지역 등에 외국어 안내 도우미 배치
 - ※ 외국인 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원봉사자 배치
- 주요 대중교통수단 외국어 안내 서비스 제공
 - 택시 외국어 서비스 제공(1330과 연계 서비스)
 - 버스 외국어 안내방송 실시
- 외국인 불편신고 센터 운영 : 불편사항 신속처리(신문고 제도 등)
- 공공기관 외국어 안내 도우미 배치 운영
 - 외국어 가능 인력배치(외국어 통역 안내원 활용)
 - 외국인 왕래가 빈번한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공항, 세관 등)
-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외국어체험 공간 조성
 - 극장, 대형마트 등 상황별, 시설별 외국어 표현 게시
 - 대형마트 취급품목 영어병기 표기 등 외국어 체험 일상화
- 다문화가정의 정착 지원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등)
 -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
 -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지도사 멘토링 지정 운영)
- 외국인을 위한 상설공연 : 난타공연

※ 장기과제

-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 외국 의료기관 등 유치

④ 도서관 외국인 사용 공간 확충

- 공공 도서관 외국어 전용공간 설치
 - 외국서적 전용 열람실 등(한라도서관 우선 시설)
- 도내 도서관 점차적으로 외국인 사용 공간 확대

⑤ 매스컴 외국어 서비스 환경 조성

-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한 외국어 서비스 확대
 - 아리랑TV FM 방송 활용방안
 - 도에서 구성작가, 뉴스리포트 제공 등 최소한 지원으로 관광객, 도내 외국인, 학생 등에게 홍보
 - 외국어실시간 서비스, 관광홍보, 도정홍보, 정기뉴스브리핑 등
 - 유선활용 외국어 방송 및 지역방송사 영어자막방송프로그램 운영
 - 도정신문(다이내믹) 및 도정뉴스 영어코너 운영
 - 전광판 및 도정소식을 이용한 홍보
 - 지역신문사의 영어신문 및 영어간지 발간지원

⑥ 관광업체 종사자 외국어 능력 배양

- 관광종사원 맞춤형 외국어 교육실시 : 연 100명
 - 관광 외국어 교육 교재 개발(영어, 일본어, 중국어)
 - 업종별 수준별 맞춤교육 실시(기초, 고급 교육)
- 관광객불편해소 포켓북 제작 보급(영어, 일본어, 중국어)
 - 배부활용 : 택시, 버스, 관광업소 및 슈퍼마켓 등
- ※ 외국인용 한글판 포켓북 병행 제작 (공항 등 안내소 비치)

- 외국어 전문 안내 및 문화관광해설사 연차적 양성 운영
 - 외국어 통역 안내원 및 외국어 가능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
- ⇒ 외국인의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에 집중배치 활용
 - 베스트 외국인 안내 종사원 선정 포상 등 인센티브

⑦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연계 사용 환경 조성

- 영어전용학교 설립
 - 초, 중, 고 12개교(공립 4, 사립 8) 설립
 - * 1단계 2010년 3월 개교 목표로 공립학교 3개교 설립
- 영어교육 센터 조성(2010년 완공 목표)
 - 영어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영어교사 및 성인 연수 등 교육기능 등
 - * 연수 참가(예상) : 국내 영어교사 양성 2,000명
- 외국 교육기관 유치
 - * 부지를 우선 조성하고, 대학유치 등은 별도추진
- * 장기과제
 - 외국어전용거리 및 외국인 테마광장 조성 등
 - Chinese Street 등 외국어전용 사용지역 지정 운영
 - 외국인 벼룩시장(야시장) 조성
 - 해외 유명 거리를 닮은 외국인 거리를 조성하여 친 외국인 환경 조성
 - * 예 : 일본 신주쿠, 중국 상해 와이탄, 미국 타임스퀘어 등
 - 외국어 테마파크 조성(영어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영화공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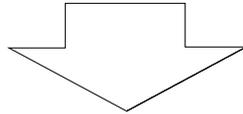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개요 >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426만m²
- 기 간 : 2008. 하반기 ~ 2013
- 사업비 : 약 7,850억원 추정(부지조성 2,250, 공공시설 5,600)
- 시 설 : 초중고 12개교, 영어교육센터, 외국교육기관 유치

4-3 공공부문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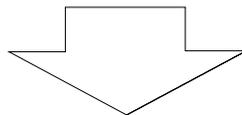
현 실 태

- 공공기관 외국어 서비스 제공 수준 미흡
- 공무원들 사이에 외국어능력 수준차가 너무 큼
- 외국어 능력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동기유발 미흡
- 외국어 능력 보유자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인 관리, 활용 부재



목 표

- 외국어 활용능력을 갖춘 국제적인 공무원 인력 양성(5개년 계획)
 - 2008년 100여명 → 2013년 1,000명이상 우수인력 양성(전 공무원 20%)
 - ※ 전문 정예요원 100명(2%), 상용화 인력 900명(18%)



핵심과제

- 공공기관 외국어 서비스 강화(외국인 투자자 서비스 제공 등)
- 공무원 외국어 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 외국어 특기자 관리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공무원 신규 채용시 외국어 가점 부여(외국어 능력자 선발)

① 공공기관 외국어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외국인 투자자 외국어 원스톱 지원 서비스 체제 구축
 - 외국어 접수된 공문서를 접수 처리(각종 신청 서류 등)
 -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한 각종 업무편람 및 자료 등 서비스
 - ※ 각종 자료 영어로 번역 및 통역 서비스 제공
- ※ 장기과제
 - 공문서 등 외국어 병기 제도화
 - 결재문서 등 국·영문 병기 작성 의무화 검토
 - ※ 결재문서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 개발 보급

② 공무원 외국어 능력 향상

- 공무원 외국어 능력별 학습과정 신설
 - 단계별·수준별 외국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외국어 전문 인력양성 : 1,000명(5개년)
 - 참여형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어학교육 실시
 - ※ 장기 외국어 교육과정 지속 실시(6급에서 7급까지 대상 확대)
- 공무원 장기 외국어 연수 확대
 - ('08) 7명 → 연 10명이상
 - ※ 도, 행정시별 장기 외국 연수 통합화 방안 검토(7급까지 확대)
- 외국어 우수공무원 활용 가능부서 우선 배치, 인사상 가점 부여
 - 투자유치, 통상업무 등 국제분야 전진배치
 - 외국어 능력자 인사상 가점 부여(외국어 자격)
 - ※ 장기적으로 5급 승진시 외국어 인증제 도입
- 공무원 채용시 외국어 가점 부여
- 외국어 학습 멘토링(Mentoring)제 실시
 - 외국어 능력 우수 공무원 「외국어 학습 멘토링제」 실시
 - 1원어민 1직원 멘토 지정 활용 : 도내 원어민교사 멘토 활용
- 외국어 경시대회 개최
- 직원 외국어 능력개발(학원수강 등) 맞춤형 복지 수혜 확대

※ 장기과제

- 영어로 진행되는 회의문화 정착
- 외국 정부기관과 공무원 교환프로그램 추진
- 상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어학 전용 교육장 설치 운영 검토

4-4 공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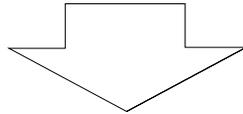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공교육강화방안추진

- 2008 제주특별자치도 영어 공교육 강화대책 발표(2008. 2. 26)
- 2개 사업 16개 실천과제

4-5 도민 외국어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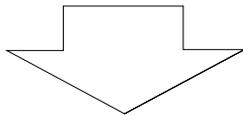
현 실 태

- 외국어상용화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및 참여유발 동기 부재로 추진 상 애로 예상(정체성과 주체성 등 가치관 혼란 등)
- 도민의 외국어능력 차이가 크고 다양한 외국어교육과정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외국어 교육관련 통합기관 부재)
- 시내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소지가 있고,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
- 외국어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기회가 적어 외국어 의사소통가능자의 숙련도 향상에 한계



목 표

- 친 외국어 환경조성
 - 도민 외국어 능력 향상으로 글로벌 역량 향상
- ※ 외국어를 일상생활에 부담 없이 자유스럽게 활용



핵 심 과 제

- 외국어 강좌 확충(인력개발원,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사이버 교육 등)
- 외국어 기본 100문장 익히기 추진
(외국어 기본 100문장 선정, 교재 제작 배포)
- 일반 가정과 외국인과의 교류확대(홈스테이, 외국인 축제, 자원봉사 등)

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도민대상 외국어 강좌를 년차별 확대(수준별 프로그램 개발)
 - 사이버 어학 학습 콘텐츠 확충(단계별 연300개 강좌로 확대)
 - 맞춤형 영어 공교육 학습프로그램 지원 : 초급 학습프로그램 제공
 - 영어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가족 프로그램, 영어경시대회 등
- 외국어교육의 평생학습화
 -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내 외국어 상용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 제주문화, 다문화가족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상용프로그램 운영 : 원어민 강사 채용 영어교육 등 실시
- 도민 외국어 기본 100문장 익히기 추진
 - 상황별 외국어(영어) 기본 100문장 선정, 보급형 책자 제작 배포
 - 마을별 외국어 습득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 주민자치위원 등
 - 도민대상 참여 운동 전개(뉴제주 운동으로 실시)
 - 도민 외국어 교육 확대 시행 및 각급 시민사회단체 협조
- “챌린지, 퀴즈 챔피언” 방송 운영의 다양화
 - 직업별, 동아리별 도민 영어경시대회 성격으로 운영
 - 해외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도민 참여의지 제고

② 외국인과의 교류 확대

- 외국인과의 교류확대를 통한 도민 외국어 역량 강화
 - 도내 거주 외국인 축제 개최(각국의 문화 등 소개)
 - 자원봉사자 능력 배양을 통한 외국인과의 교류 확대
 - 세계 평화봉사단 활동 강화, 홈스테이를 통한 교류
 - 자원봉사자 집중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만남의날 행사 등

5. 결 론

앞에서 지적했듯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국어상용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불편 감소를 위해 문서의 외국어 병기 실시, 공공 서비스의 외국어 병용 서비스 실시, 호텔, 음식점 등의 모든 공공시설에 외국어 병기, 외국어 라디오, TV 방송 확대, 외국어신문 확대가 요구된다.

외국어 능력 향상은 외국어의 투입 (Input)과 상호작용(Interaction)의 양과 비례한다. 가령 영어의 투입(Input)은 영어로 된 모든 것을 일컫는다. 영어로 된 영화, 팝송, 영어 잡지 등 영어로 되어진 모든 것이 투입(Input)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상호 작용은 원어민(혹은 영어를 말하는 자국민)과의 영어 대화를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영어 투입이나 상호 작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영어가 공용어도 아니고 영어로 된 미디어가 많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해외 연수나 유학을 떠나고, 최근 국내의 영어 마을에 대한 관심도 높다. 북유럽 국가들은 영어가 공용어가 아니지만 공영 방송에서 몇 개의 영어 방송 채널이 있고 모든 영어 방송은 자국어 자막처리가 되어 있다. 실제 북유럽 국가 (핀란드, 네델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학생이나 교사를 인터뷰 해보면 자신들은 TV를 보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다고 얘기한다. 영어 학습을 위한 교육 방송이 아니라 드라마나 쇼 프로와 같은 일반 방송인데 모두 자국어가 자막처리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도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영어에 많이 노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통한 영어 자막 방송의 확대와 각급 학교에서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시설 및 원어민 교사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제는 고비용 저효율로 일컬어지는 우리 영어 교육이 저비용 고효율로 바뀌어져야 할 시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하고 있는 외국어 환경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과 위에서 말한 언어학적 성공요인들이 결합됨으로써 외국어상용화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정토론

○ 좌 장 : 김종훈(제주대학교 사범대학장)

○ 토론자 : 강택상(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정윤중(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기획조정팀장)

고태언(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신의경(제주한라대학 교수)

홍경선(제주대학교 교수)

한문성(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고승한(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외국어상용화 - 제주관광의 핵심 인프라

정 윤 중(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기획조정팀장)

□ 제주관광 현황

○ 관광객 유치 현황

- '05년 관광객 500만명 시대 개막 이후 매년 5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내국인관광객 3.0%, 외국인관광객은 15.2%의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외국인관광객의 급속한 증가는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조사보고서에서도 향후 중화권 관광객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관광조수익 현황

- 관광 조수익은 최근 5년간 평균 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07년도 최초로 관광조수익 2조원 시대를 개막하였음.
- 이러한 증가율은 1인당 관광경비가 큰 외국인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외국인관광객 유치확대의 과제

- 한국관광공사에서 2007년도 국제회의 참가를 위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제회의 운영 수준, 회의 참가자 만족도 등에서 제주도가 국내 최고로 조사되었음.
- 반면에 제주방문시 겪었던 어려움이나 불편했던 점에 대해 '언어소통'이 73.6%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혔음. 또한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조사에서도 중화권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개선과제로 중화권 관광객을 위한 의사소통 시스템 개선 등이 선결과제로 제시됨.
- 또한 최근 관광 패러다임은 컨벤션 등 회의산업의 집중 육성, 의료 교육 등 타산업과 연계된 융복합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관광객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시스템의 확보가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제가 되고 있음.

□ 관광업계의 현실과 외국어상용화 활성화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업계의 영세성은 외국어상용화를 위한 인력 확보, 체계적인 자체교육, 인센티브 시스템 적용 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관광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사업장이 제주 전역에 포진되어 있고, 외국어상용화에 대한 동기유발 정도가 낮아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교육 등도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최신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교육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
- 우선 학업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외국어상용화에 대한 강력한 동기유발을 불러 일으켜야함. 외국어상용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업성과 우수자에 대한 해당어권 배낭여행 실시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인터넷 방송 등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관광종사원들의 교육 참여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미래의 관광종사원인 관광 관련 학과 학생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는 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현재 관광종사원 교육차원에서 각 행정시, 도의 위탁을 받은 관광협회 등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교재개발 등을 일원화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외국어 상용화를 위한 추진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고 태 언

21세기 새로운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는 100만 도민과 국민들의 성원 속에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의 근거에 의거,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과 자치역량 강화 등의 그 목적을 두고 인간환경 지식중심의 쾌적하고도 풍요로운 삶의 제주사회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시키고 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시작과 함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함께 천혜자연의 도시로서 세계인들로부터 관심과 집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도민들도 급변하는 세계적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만이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해 나아 갈수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평화의 섬과 천혜자연환경 그리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으로 친절서비스, 배려마음, 친절 한 통역서비스 등이 도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다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할 때 제주는 세계인으로부터 사랑 받는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의 장벽을 빨리 허물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제주를 찾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언어에 불편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름다운 평화의 섬을 널리 알리는데 모두 함께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시점에서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외국어 상용화 성공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됨을 매우 뜻이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발제문은 외국어 상용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며 이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운영해 나갈 것인가 대한 장영준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전반적인 의견을 같이 하면서 본 토론자는 이 분야에 전문직은 아니지만 교수님이 발표 제안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부분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첫째, 도민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도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 주체가 되고 있는 대상 등에 대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문제점의 무엇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태 파악이 방대하여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만 실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현실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가 있다.

둘째, 특히 행정, 교육기관에서도 외국어 상용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에서 새로운 전기를 모색해야 한다. 도민과 행정기관,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대학기관에 이르기까지, 외국어 상용화에 근본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어 상용화 정책적 관심에서 출발하여 사회현장에서의 외국어 생활화를 위한 교육의 연결망은 반드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전략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외국어 사용화에 대한 법과 조례 등을 만들어 외국어 상용화 프로그램들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행정기관, 대학, 단체, 기업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전문적 대상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적용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 상용화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 활용하여 체계적인 활동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여러 영역에서의 연계성 활동에 많은 정보들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외국어 상용화 사업에 예산절감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외국인 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 도내에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의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결혼 이민자가 제주도 전체인구의 0.7% (4,130명) 수준에 이루고 있다. 2007년 12월31일 기준 제주도 총 인구는 56만3388명으로 그중 외국인은 총 4천130명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931명(29.1%) 증가했는데, 나라별

로는 중국계가 1천787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계 중국인 493명, 베트남 449명, 인도네시아 252명, 미국 225명, 일본 168명 순으로 집계 되고 있다.(제주 이주민센터 자료제공)

우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인적자원이 수요조사를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과 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외국어 상용화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 확대와 동시에 그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 중에는 고학력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2. 문화 교류확대를 통한 외국어 역량강화

첫째, 21세기 지금에 지구촌 다인종 다문화 시대를 맞고 있다.

이를 위한 다인종 다문화 정책 개발과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다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도민들의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교류사업 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한다.

다문화 사회는 우리들의 참여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다각적인 협력과 사랑 포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국인 함께하는 문화축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다문화 가정과 함께 만남의 날, 외국인 자녀를 위한 평화 캠프,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다.

둘째, 통역봉사자 능력배양을 위한 집중교육

매년 제주에는 크고 작은 국제적인 행사들의 년 중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통역 봉사활동은 그곳 행사장 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통역 봉사자들의 활동의 참여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자원봉사 조직은 다른 사회적 조직들에 비하여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개별조직의 특성과 고유기능이 강화되어야 함과 동시에 취약점을 상호보완하기 위한 외국어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특히 외국어 통역부문의 도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더욱 외국어 활용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자원봉사 전문 강사 인력 확충

외국어 상용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할 경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전문 강사를 확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려는 외국인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되 일정 실비만 제공하여 인적자원을 확보 하여 활용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전문 강사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확보가 바람직하다.

둘째, 외국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상설 교육장 운영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들과 연계한 상설교육장을 설치 누구나 부담 없이 상시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외국어 교육 상설 교육장을 상시 운영하다면 많은 도민들의 외국어 학습에 참여 할 것이다.

셋째, 외국어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영역확대와 프로그램개발

지금 현재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 활동영역은 많은 부문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인적 자원 활용이 국제적인행사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이어서 그렇다.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 많은 부문에서 외국어 통역 봉사자들의 참여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개선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개발해야 한다.

넷째, 전문 외국어 통역 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수 기회 확대

외국어 상용화를 위해서는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하는 선진기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한다. 또한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기관, 대학, 학원 등의 연계한 인터넷 강좌 개설 운영

제주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외국어 상용화를 연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의 주위에 많이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발굴하여 수준별, 대상별 강좌를 개설 수시로 외국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도민들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많은 정보들을 교환하고 토론 할 수 있는 인터넷 문화가 자연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오늘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외국어 상용화 추진방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 참석자 모두가 지금의 한국에 외국어 활용 문화에 대한 열악한 환경들을 인정 할 것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내, 외적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21세기 새로운 비전과 세계경영 전략을 구축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지금에 지구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변화의 물결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경영방식을 모색 국가적 경영 전략들을 국가와 국민들에게 설득시켜 나가고 있다. 바야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다문화 사회의 홍보와 경영전략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새로운 경영의 다인종 다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전 100만 도민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량에 경영적 에너지는 도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한다.

오늘 본 토론자는 위와 관련 하여 전문적인 학자이거나 전문가가 아니지만 자원봉사 관리자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하는 바를 토론하였으며 관련 내용들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개최한 세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 역할을 할 것 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외국어 상용화 추진방안 세미나(토론문)

신 의 경(제주한라대학 교수)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글로벌화를 위한 외국어 상용화 추진 방안 세미나」(2008년 4월 30일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제주발전연구원)에 참석하여 외국어 상용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된 점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평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최적의 외국어 상용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해 오신 도 및 행정시, 대학교 및 대학, 교육청,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의 각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인이 맡은 역할은 장영준 교수님의 <외국어 상용화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안>에 대한 토론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토론은 본격적 학술 토론이라기 보다는 장영준 교수님의 제안에 대한 몇 가지 보충의견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영준 교수님의 제안은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는 일부 학자들의 물역사적·반문화적 억지주장이 아니고 제주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그리고 현실적 수요 담당층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제출한 몇 가지 제안들이라고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또한 도내에서 외국어 상용화를 위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중국어를 교육하며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용어로서 영어를 채택하자는 의견부터 상용어로서 적재적소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상용화 환경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면서 적지 않은 방안을 스스로 고민해오고 있는 터이라서 장영준 교수님의 의견에 누구보다도 귀를 기울였고, 배운 바가 많았습니다. 동도인의 입장에서 배우는 마음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선 장영준 교수님의 제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를 상용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평소 장영준 교수님께서서는 관주도의 인프라구축의 한계를 지적해오셨고, 공급자(관리자) 위주의 정책보다는 수요자(담당층) 측면의 역할이 강조되는 밑으로부터의 균형적 상용화

방안을 지지해오셨는데, 오늘 발제문은 이러한 측면이 강조되기 보다는 오히려 공급자 측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① 본인의 판단으로는 이와 같은 논지의 구성은 상용화 담당층의 측면으로부터 주목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급자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된 논지라고 여겨집니다. 혹시 이와 같은 견해가 다년간 제주의 외국어 상용화 방안을 궁리하시면서 얻어진 결론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제주의 특성상 도 및 시 행정기관, 교육청, 대학교, 등등 공급자 인프라 활용이 선행되는 특단의 조치가 적어도 제주에는 단기적으로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하신 것인지 우선 이 점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②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활용이 선행 모델의 채택 문제입니다. 본인 또한 시행 착오를 줄이는 데 선행 모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영준 교수님의 제언을 십분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선행 모델 문제에 있어서 본인은 조건 없는 동의를 보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주는 국외의 여타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의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모델을 피하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제주의 1차적 성공의 관건은 국내의 인천, 부산, 서울(과주) 등등 지역과의 경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점은 더 확대하면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등 세계의 여러 지역들의 특수한 문화적 환경과 제주가 다를 경우라야만 외국어를 상용화하는 제주의 성공적 방안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주의 글로벌 경쟁력은 일정 정도 글로벌화된 제주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단기적 과제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글로벌 제주'는 '로컬 제주'의 특수성을 보유할 때라야만 제주의 글로벌 경쟁력이 가능하겠다는 본인의 생각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인은 장영진 교수님의 논지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외국어를 상용화하는 글로벌 제주'의 성공의 관건은 외국어를 상용화하는 제주가 '제주 로커리티'를 영원히 유지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인의 제주의 성공적 외국어 상용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끝맺을까 합니다. 본인은 영어 교육 전공자가 아니고 중국어 전공자입니다. 하지만 영어 교육과 영어 사용 환경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그 중요

성을 느끼면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대학의 교육 현장에서 그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각적 주장은 제주의 외국어 상용화 환경에 대한 본인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인데, 상용화의 정도와 순서에 있어서 영어 상용화 과제가 우선이고 순차적으로 다른 외국어, 예를 들어 일본어, 중국어 등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어 상용화와 동시에 상용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동시에 외국어 상용화가 허용되고 추진되어야 하는지 이 점은 근년 본인 개인에게 고민 중의 고민입니다. 아직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럴싸한 입론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차제에 ③ 본인의 중간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외국어 상용화가 필요한 곳으로부터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준비과정이란 있을 수 없고, 얼마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외국어의 상용화를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공적 모델로 시행착오 모델을 분류 추출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공적 모델을 확대하여 나간다면 조기에 성공적 방안이 정착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만약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기타 외국어의 상용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면 도내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고려하여 우선 영어, 중국어 만이라도 조속히 동시적 상용화가 실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관건은 민, 관, 학, 산의 이해와 공감대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은 자치도나 연구원의 주관으로 도내 각 언론 기관을 통한 가칭 <21세기 제주의 성공적 외국어 상용화 방안>과 같은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 드리면서, 온/오프라인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제작하여,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를 누구보다 염두에 두고 전(全) 도민들과 소통하여 공감대를 확산시켜줄 것을 겸허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어상용화 성공을 위한 조건 : 토론

홍 경 선(제주대학교)

토론자는 발표자의 제안서를 근거로 발표자에게서 논의한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토론장에서 토의하고 싶은 내용과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과제로 국제자유도시 및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고, 자연유산, 전통문화, 관광 등의 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국가의 삶을 향상시켜 갈 수 있도록 이런 과제를 효율적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 외국어 상용화 정책을 추진할 뜻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환경 분석내용이 궁극하고 공급자 중심이라는 문제점에 정책의 수요자이며 실행 주체자가 될 도민의 의사 수렴과정이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정책이 의도하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언어 학습은 단순히 말을 배우는 단계에 국한 되지 않고 언어가 함의한 문화적 유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장단점 공존)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문제요인 분석 결과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설명: SWOT 분석이란 어떤 기업이나 상황의 내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어 이를 토대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죽이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획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석으로 장점(Strength) 단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를 기본으로 하여 내, 외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잡고 대처하기 위해 쓰이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강점은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소비자로부터 강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지, 약점은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소비자로부터 약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지, 기회는 외부환경에서 유리한 기회요인은 무엇인지, 위협은 외부환경에서 불리한 위협요인은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제주도가 외국어상용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이벤트 형 사업 추진보다는 공교육 제도의 개혁을 통해 변화를 가져온 핀란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실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이스라엘, 노르웨이, 터키 등). 핀란드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우리나라의 사회 여건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같이 다언어 국가로 영어가 공용어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들보다는 영어와 다른 어족의 모국어를 보유한 국가라는 점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핀란드의 경우 20 여년 기간동안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꾸준한 개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을 도입할 당시 사회 각계각층이 영어교육 개혁에 국가의 사활이 걸렸다는 점에 동의함으로써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도 밝혀두고 싶습니다. 초 중등 교육기관 뿐 아니라 대학의 역할도 모범사례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보상체계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핀란드 형을 벤치마킹할 경우 교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부담 대비 효과를 고려해볼 때 감행할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까?

4월28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제주도는 외국어 상용 인력을 현재 5000명에서 2020년까지 60,000명으로 확대하는 외국어상용화 정책 추진 1단계(2008-2012) 외국인종합안내 포털 시스템도입, 2단계(2013-2016) 외국인 거주 여건 확충, 3단계(2017-2020) 외국인 전용거리 조성 등을 통한 외국어 상용화 정착계획도를 제시했다. 제시된 3단계 방안이 효과적인 점진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어교육도시 구성에 관한 중앙정부의 방침이 확실치 않습니다. 경제특구 내에도 국제학교 설치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제주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면밀한 사전 조사와 사전 정지작업으로 출발해서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문고 유치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된 아시아 근처 상황을 보면 주변 인접국들에 우수한 국제 학교들이 이미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전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국내의 경제특구 지역의 국제학교들과 제주지역의 학교들이 차별화를 모색해야 할까요?

(며칠 전 모 일간지에서 한 카지노관련 투자가가 마카오 등이 수요충족 한계 상황이므로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지의 중간위치에 있는 제주 지역이 전망 있는 투자처라고 설명하면서 투자 결정을 했다는 기사를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에서 국민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세 가지 축으로 첫째 학교의 영어 교육방법(상호작용, 의사소통), 둘째는 영어능력의 평가 방법으로 말하기와 쓰기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셋째는 영어 환경(영어 input 확대)이다. 첫째, 둘째, 셋째 조건들은 영어 상용화가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효과가 있다. 영어 상용화가 도래하기 이전 단계에서 영어 상용화 단계로 이행되는 중간단계에서 실천해야 할 방안으로 보입니다. 영어 환경은 영어에 대한 노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체험형 영어캠프 운영, 방송 및 인터넷 활용 등을 통해서 접근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주교대에서는 초등영어교과가 도입된 이후 예비교사들에게 의사소통교수법을 사용하도록 훈련시켜왔으므로 최근 10년간 배출된 모든 초등교사들은 의사소통교수법을 활용할 지도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교사 연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등과정에서는 대학입시의 영향으로 의사소통교수법의 도입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어 상용화 토론 내용

한 문 성(제주일보 편집부국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말이 통하니까 불편함을 느끼거나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을 한 번 나가보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고 그러다보면 쇼핑을 하거나 관광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제주를 찾아왔을 때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면 그냥 숙박 곁합기 식의 방문에 그치고 제주도의 매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2002년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느끼는 언어 불편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물론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에 앞서 1998년 입안 당시부터 외국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0여 년이 흐르고 있는 지금도 외국어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앞서 주제발표에서도 나왔듯이 제주의 외국어 인프라 여건이 전체 인구의 1%(추산) 내외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세미나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옛 격언처럼 본격적인 외국어 상용화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장영준 교수님이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제주의 외국어 실태와 제주

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추진전략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 또한 외국어 상용화를 위한 제언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문제점을 잘 보완한다면 외국어 상용화 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발표한 외국어 상용화 추진계획안 역시 내용상으로는 잘 만들어졌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그렇듯이 계획만 잘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외국어는 늘 사용을 하지 않으면 거의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데 지속가능한 교육을 하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 등이 가능한 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제주도의 계획을 보면 4개분야 가운데 공교육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얼마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의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시수를 늘리는 등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영어교육을 본격화하면 우리 학생들은 초.중.고 12년과 대학교육까지 합한다면 최소 14년에서 16년까지 외국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중학생이 4년제 대학을 나오게 되면 2020년 외국어 상용화 목표연도와 일치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외국어 상용화 실현 연도의 주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육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추진하게 된다면 과연 외국어 상용화 목표가 달성될 지는 의문입니다.

바로 열악한 교육재정 현실상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하는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제주도가 확보해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 정체성과 외국어 상용화 정책

고 승 한(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특정지역의 문화는 오랜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외부사회 혹은 환경과 부단한 접촉과정에서 생성, 접합, 동화 및 발전되거나 소멸해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특히 언어도 문화적 산물로서 특정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 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삶의 질서와 내용을 계승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세기에 문화는 통신기술 및 교통의 발달에 의해서 급속한 변화와 확산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속도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문화유형들이 세계성과 지역성을 가지면서 상호 소통하는 보편성과 독특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21세기 문화는 고도의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의 발달로 말미암아 지역과 세계를 이어주는 공간적 응축 속에서 지역의 세계화와 세계의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는 세계의 지역화는 급속도로 진전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반면에 지역의 세계화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 문화가 외국문화와의 끊임없는 접변과 동화를 거치고, 해방 이후 미군정과 한국 전쟁 이후 미국 중심의 서구문화가 우리 고유문화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일반사람들이 서구문화 혹은 미국문화를 따라가는 방향이 선진국 혹은 선진문화로 빨리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 고도경제성장이 전개되고 아울러 근대화에 의한 서구화와 미국화의 확산이 우리사회의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소홀히

하게 만들어 우리 문화의 정체성까지 뒤흔드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어 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구문화 혹은 미국문화가 마치 보편적 문화양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그것은 사람들의 생활문화에 젖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지나친 문화적 동화주의가 심하게 나타나 일상생활 속에서 스며들게 되면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한 가치와 보존에 무관심을 넘어 업신여기는 문화정체성의 위기로 까지 발전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문화의 확산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와 저항, 그리고 비판을 통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강하게 전개되어 온 게 사실이다. 그런 결과가 판소리, 사물놀이, 난타, 한지공예, 김치, 한류열풍 등의 문화양식으로 나타나 우리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우리의 전통문화가 서구사회에서 호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문화의 뿌리를 형성하는 언어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상, 언어는 먼저 특정지역 주민들이 일상적 대화를 소통시키는 도구적 역할을 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질서와 구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회의 사람들은 언어를 통하여 그들 나름의 독특한 정신문화와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나가고 시대 변화에 적응하면서 이를 발전시켜 나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그리고 제주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면서 외국어 상용화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맥락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어 상용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한국/제주문화의 전통, 역사, 그리고 가치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와 학습이 더욱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 혹은 수강생들이 먼저 우리말과 글, 그리고 제주언어에 대한 소중함, 독특성, 문화적 가치, 그리고 실용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즉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잘하기에 앞서

우리말과 글을 제대로 하는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둘째, 문화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특정 외국어만을 상용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 외국어의 상용화는 특정 문화에 대한 일방적 동화주의를 파생할 뿐 만 아니라 문화적 선택의 다양성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가 품격있는 문화를 가진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갖는 일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언어, 음식, 의복, 풍습, 유행, 종교 등이 제주의 독특한 전통/지역/향토문화에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과정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과 같은 다양한 언어들이 학습되어 교육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어 상용화 추진은 강제성, 하향식, 그리고 단기성에 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신에 외국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발성, 참여성, 단계성 그리고 장기성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국어 상용화를 사회적 압박으로 확산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와 사업상 꼭 필요한 사람 (혹은 조직, 기관, 사업체 등) 혹은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한 교육·훈련시키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자연스레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외국어 상용화 추진에 앞서 외국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혹은 교육·훈련시키고자 하는 수급시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산업부문별, 연령별, 수준별, 직업별, 외국어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외국어 교육 시장에 대한 객관적 조사 분석을 통하여 외국어 상용화 정책을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에 대한 한국 및 외국 문화에 대한 보다 폭 넓은 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혹은 교

사)들이 외국어(특히 영어)의 문화적 우월성에 경도되거나 혹은 우리 고유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고 우리말/글 혹은 제주어 등과 같은 한국문화와 제주문화를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동시에 외국어를 보다 잘 교육시키려면 외국 문화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학습이 요구된다.

여섯째, 외국어 상용화를 추진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실시하기에 앞서 지역사회 혹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어 상용화가 자칫 사회적 낭비와 마찰을 불러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학교 교육 뿐 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외국어교사에 대한 자격, 선발, 임용 및 채용과 관련하여 외국어교육인력양성 및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최고의 외국어교육 인력양성을 담보하는 자격, 선발, 임용, 관리 및 평가를 담당하는 인증 및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질적으로 우수한 최고의 외국어교육인증 및 평가시스템을 통과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도 높아야 할 것이다.

MEMO

MEMO

MEMO

